

여대생의 의복행동과 MBTI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thing Behavior and the MBTI Personality Type

전명숙 · 김용임

원광대학교대학원 의상학과 · 우석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Jon, Myong-Sug · Kim, Yong-Im

Dept. of Clothing, Wonkwang University · Woosuk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othing behavior and the MBTI personality type.

I selected the college women of W college 96 grade as an object of this study for MBTI personality type test. It is analyzed to relation according to energy direction, perceiving function, behavior style, and function/temperament of psychology. This study presents the fashion, modesty, ostentation, extravagance, and aesthetic of clothing behavior in relation to MBTI personality type.

The results of study is as follows :

1. There was the difference of significant level($P < 0.05$) between fashion and perceiving function on MBTI preference tendency of personality type. When person having a lot of fashion corrects a information, this person mostly uses the function of intuition among perceiving function.
2. There was the difference of significant level($P < 0.05$) between modesty and perceiving function on MBTI preference tendency of personality type. Modesty was deeply related to introversion of person having energy direction.
3. There was no difference of significant level between ostentation and energy direction, perceiving function, behavior style, decision function on MBTI reference tendency of personality type.
4. There was shown the difference of significant level($P < 0.01$) between extravagance and energy direction on MBTI preference tendency of personality type. Extravagance is deeply related to extraversion of person having external experience.
5.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aesthetic and clothing behavior.
6.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function/temperament of psychology and clothing behavior.

Key words : MBTI preference tendency, energy direction, perceiving function, inborn tendency, temperament.

Corresponding author : Jon, Myong-Sug
Tel. (063) 253-2385.
E-mail : jsmyeong@hanmail.net

I. 서론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복이 그 시대의 사회, 종교, 정치, 경제의 상황을 반영시키고 동시에 한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역할 및 자기 자신의 여러 측면에 대한 특성들을 전달해주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Lester & Kerr, 1956).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상호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의복의 목적은 자연환경에 대한 신체보호 역할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사회의 계속적인 변천과 역사의 흐름은 의복의 유행을 가져오고 특정한 옷을 선택하려고 하는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의복행동과 개인의 성격특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인성특성을 진단하는 검사 도구에 의한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밝혔다. 그러나 선천적 성격 선호경향성과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성격의 관점은 특성론과 유형론으로 나누어진다. 유형론의 관점을 취한 Jung은 성격을 선천적인 심리기능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하였으며, 심리기능의 역동에 따라 개인의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MBTI의 심리유형 연구자들은 개인들의 행동 차이가 개인의 선천적인 선호 유형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두 개의 손이 있지만 한 쪽 손을 다른 한 손 보다 더 선호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수행할 때도 심리적 선호경향이 있다고 본다(심혜숙, 임승환 역, 1997).

본 연구는 선천적 성격유형과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MBTI 성격유형인 에너지 방향, 인식의 기능, 판단의 기능, 행동양식, 심리의 기능별·기질별로 관계를 분석하여 선천적인 성격특성 요인(에너지 방향, 인식의 기능, 판단의 기능, 행동양식, 심리의 기능·기질별)이 의복행동(유행성, 정숙성, 과시성, 사치성, 심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에서의 선호경향이란 개인이 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더 쉽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타고난 경향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선천적인 태도와 기능들이 각각 어느 정도 의식적 발달 상태에 있거나 무의식적 상태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발달 수준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 개인간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 MBTI 성격유형은 개인이 주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반응양식이 어떠한가가 지표가 된다. 인간의 의복행동도 사회생활과 개인의 심리적 상황이 만족하고 편안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의복행동에서 착용자의 개성이나 선호하는 바를 그대로 나타낸다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복행동도 그들의 성격유형과 관련 된다고 할 수 있어 MBTI의 심리유형 지표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에 따라 의복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MBTI 성격유형 검사지는 Carl Jung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Katherine과 Isabel이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 수 있도록 심리도구를 개발하여 성격지표 도구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특정지역 일부 여대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대생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명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행동

1) 의복행동의 변인 및 개념

선행연구에 사용된 의복행동 변인으로는 Creekmore(1966)가 심미성, 정숙성, 흥미성, 편안성, 주의 집중성, 관리성, 사회적 안정성, 심리적 의존성 등을 사용하여 그 이후의 의복행동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고, 김광경(1974), 박찬부(1978), 이인자(1977), 강혜원(1974) 등에 의해서 널리 연구되었다. 이명희(1982)는 서술형 질문지에 예의·정

숙성, 심미성·성적 매력성, 경제적 과시성, 주의 집중성 등 변인을 사용하였고, 최순희(1981)는 심미성, 정숙성, 유행성, 사치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주의를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하는 과시적 변인을 첨가하여 유행성, 정숙성, 과시성, 사치성, 심미성 등의 5가지를 택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1) 유행성

유행이란 어떤 주어진 시기에 인기 있게 받아들여진 광범위한 스타일을 유행이라고 Horn는 정의하였는데(1975), 유행성은 평소 여성 의복에 관심이 많고, 여성의 의복은 유행형을 고려하여 유행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태도를 말한다.

Reed(1974)의 연구에 따르면 유행에 앞서는 대학생은 사회문제에 대하여 부모와 의견차이가 적으며, 유행에 몇 년씩 뒤져있는 대학생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며 주로 안정적인 편이라고 한 반면 Schrank(1970)는 유행에 앞서는 사람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고 한 사실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강혜원(1974)은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유행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고, 이금실 등(1974)은 과시욕구가 많은 사람의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높고 지위와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이 새로운 유행성을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의복행동이 유행성과 심리작용과 연관되어 연구되어진 것이라 풀이된다.

(2) 정숙성

정숙성은 성적 매력으로부터 야기된다(Roesencranz, 1972). 정숙성의 목적은 질병예방, 사회적 또는 성적 편안함, 그리고 수치심을 막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있으며, 정숙성을 나타내는 의복은 겸양적인(reserved), 예의바른(decourous), 품위 있는(ent), 허식 없는(unpretentious), 보수적인(conservative) 의복으로 정의된다. 즉 정숙성은 신체를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 정숙한 태도를 말한다.

김광경(1974)은 경제적,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여대생은 정숙성에 관심이 적다고 하였다. 박찬부(1978)는 자기평가에 있어 개방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사람, 즉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관심 있는 여대생은 의복의 정숙성을 중시하여, 단

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 매우 정숙한 의복을 착용한다고 그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박광희·강혜원(1984)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고생일수록 의복의 정숙성에 대하여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고 그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숙성은 자기평가에서 개방적이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의복의 실용성에 관심이 높은 여대생이 정숙성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3) 과시성

과시성은 타인에게 눈에 띄는 의복이나 장식을 통해서 주목을 받으며 자기 과시를 하려는 태도를 말하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의복의 과시성이 규범을 벗어날 때는 정숙성과 상반된다고 하여 정숙성과 과시성은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다(Creekmore, 1966).

반면에 Hirn(1904)는 보석의 기능이, 장식 그 자체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신체의 일부분에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있다고 하여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자신을 돋보여 타인의 시선을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과시성과 심미성은 밀접한 관계를 지닐 수 있고 하였다. 홍금희(1982)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과시성과 심미성은 정적인 관계, 과시성과 정숙성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볼 때 현대인은 과장스럽게 시선을 끌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과시성은 의복행동의 중요한 변인은 아니지만 심미성과는 유사한 측면을 지닌다. 그러나 정숙성과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사치성

여성의 의복은 화려하고, 유행에 앞선 값비싼 고급품으로 의복이 돋보여야 한다는 태도는 사치성이라고 할 수 있다. Form, Stone, Douty (Takahashi & Newton, 1967)는 사람들의 옷은 신분상징에 예민하다고 하였는데, 의복을 신분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의복이 부와 신분을 상징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특수한 장소에서 값비싼 의복을 구입하여 착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금실 등(1978)은 과시욕구가 많은 사람이 의

복상정성에 관심이 높고, 지위와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의복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광경(1974)은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으로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려 하므로 정숙한 의복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치성은 의복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개인이 원하는 일정한 지위와,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한 신분상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5) 심미성

여성의 의복은 곱고 단정하며, 미적인 면을 중시해야 하고 세련되어야 한다는 태도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미의식인 '아름다움'은 '고움'으로 표현되는 보통미, 멋으로 표현되는 특수미의 양면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조규화, 1982)고 하였다. 의복의 심미성을 다른 변이들과 관련시킨 것을 살펴보면 Kefgen과 Tuchie-specht(1969)는 심미적 가치관이 좋은 사람의 의복을 실루엣이나 아름다움에 따라 선택하고 옷을 아주 잘 입으려는 성향이 높다고 하였다.

Benson(1971)는 의복에 대한 미적인 관심이나 흥미가 사회참여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임춘봉(1974)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신체에 대한 자아개념은 의상의 심미성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하여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은 미적 감각을 충족시키는 의상을 입어 자신의 신체를 더욱 돋보이게 하려 하며, 의상변인 중 심미성에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리하여 현대인은 복식을 통한 미적 표현수단을 의복의 심미성, 장식성, 신체조화 이 세 가지 행동으로 구분하여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이명희, 1982).

따라서 심미성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MBTI 성격특성

1) Carl Jung의 심리유형론

Jung(1976)의 심리유형론(Psychological Types)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은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의 태도와 외부 환경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 네 가지 마음의 기능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즉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면 내향성(Introversion), 외부로 향하면 외향성(Extraversion)이 되고 네 가지 마음의 기능인 사고(Thinking : T), 감정(Feeling : F), 감각(Sensing : S), 직관(Intuition : N)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사고와 감정의 기능(의사결정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판단형(Judging : J)이라고 하고, 감각과 직관의 기능(정보수집의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인식형(Perceiving : P)이라 했다. Jung은 이런 마음의 기능 선호성은 타고나는 것이며, 태도와 기능 중 어느 한쪽을 선호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독특한 성격유형이 나타난다고 하는 선천적 성격유형을 제시하고 있다(이순자, 1997).

Jung의 심리유형론에서는 성격유형을 외향형(E)과 내향형(I)의 두 가지 태도 그리고 사고(T), 감정(F), 감각(S), 직관(N)의 네 기능의 조합에 의하여 8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와 기능들이 각각 어느 정도 의식적 발달 상태에 있거나 무의식적 상태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발달 수준에 차이가 생기고, 결국 개인간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고 하였다(설영환 역,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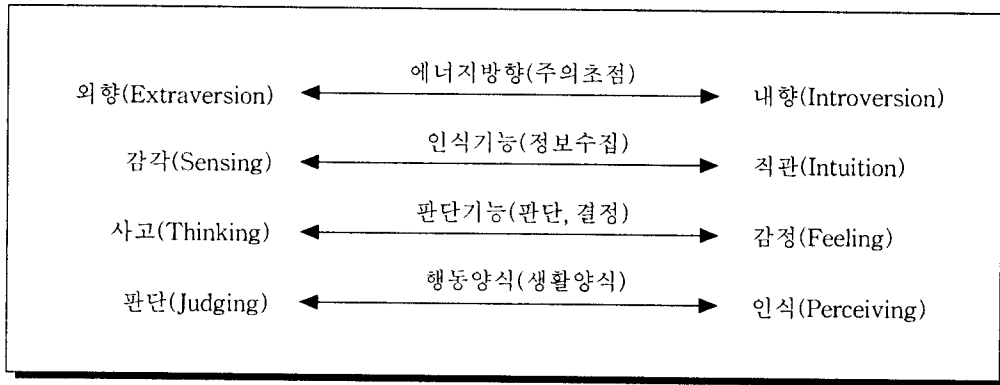
Myers와 Briggs는 Jung의 심리 유형론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했던 판단과 인식 과정인 척도를 추가시켜 검사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를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라 한다(양은옥, 1997).

2) MBTI의 네 가지 선호경향과 지표

Briggs와 Myers에 의하여 제작된 MBTI의 네 가지 선호경향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말하는 MBTI에서의 선호경향이란 개인이 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더 쉽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타고난 경향성을 말하며 각 선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외향형-내향형 (EI : Extraversion-Introversion)

EI지표는 주의 집중과 에너지의 방향 · 원천으로서 개인의 주의초점과 에너지 방향이 외부에 있는지 또는 자기 내부에서 생성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Jung은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했다.



〈그림 1〉 MBTI의 네 가지 선호경향(김정택·심혜숙, 1995)

외향성(E)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주로 외적 세계를 지향하므로 그들의 인식과 판단은 사람과 대상 등 외부세계와 외부환경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외부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해 에너지를 얻게 되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외적 경험을 필요로 하고, 먼저 행동으로 체험하려는 경향이 있다.

내향성(I)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주로 내적 세계를 지향하므로 이들의 인식과 판단은 개념이나 사상 등 자신의 내부세계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해 에너지를 얻게 되며, 생각을 주로 하는 활동을 많이 요구할 때 더 많은 흥미와 편안함을 느낀다. 이들은 세상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 먼저 생각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려 깊고 주위와 떨어져 명상에 잠기기를 좋아하고, 고독과 사생활을 즐긴다.

(2) 감각-직관 (SN : Sensing-Intuition)

SN지표는 정보 수집(인식) 기능으로 감각(S)은 오관(五觀)을 통하여 관찰되는 사실과 사건을 인식하며, 감각 과정에 근거한 정보 수집을 중시한다. 직관(N)은 오관보다는 직관 과정에 근거한 정보 수집을 중시하며, 의식을 넘어 작용하는 의미, 관계 또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감각기능(S)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 실체를 이해하려 하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서 대체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즐기고 순서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근면 성실한 형이다.

직관 기능(N)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파악하고 본질적인 패턴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이들은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일 처리 방식을 추구하고 모색하며 상상력과 영감에 더 큰 가치와 비중을 둔다.

(3) 사고-감정 (TF : Thinking-Feeling)

TF지표는 의사 결정(판단) 기능으로 일단 인식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사고와 감정이라는 두 가지 비교되는 판단 방법중 개인이 선호하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인식된 정보를 판단·결정·선택하게 된다.

사고형(T)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논리적인 결과들을 예측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의사결정에 다다른다.

감정형(F)의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더욱 초점을 두므로 인간중심의 가치에 기초를 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어떤 가치를 느끼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더 중요하게 된다.

(4) 판단-인식 (JP : Judging-Perception)

JP지표는 외부 세계에 대한 생활 태도로써 개인이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는 방식이며, 또한 외부 세계를 다루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로 사용하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나타낸다. 판단형(J)은 사고나 감정에 의한 판단 과정을 선호하고, 인식형(P)은 감각이나 직관에 의한 정보 인식 과정을 선호한다. 여기서 판단이란 비관적인 의미의 판단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개인이 구조화된 접근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다.

3) MBTI의 기능과 기질의 특성

(1) 네 가지 기능의 특성

기능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여러 부분이 전체 내에서 하는 역할을 말한다. MBTI의 기능은 인식기능(SN)과 판단기능(TF)의 배합에 따라 ST(감각·사고), NT(직관·사고), SF(감각·감정), NF(직관·감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마음의 기능적 측면으로서 흥미의 방향 또는 리비도의 움직임에 따라 구분하는 유형이다.

첫째, ST(감각·사고)형은 실질적 사실적 유형으로서 인식할 때 주로 감각에 의존하고, 판단할 때는 주로 사고를 사용한다.

둘째, SF(감각·감정)형은 동정적 우호적 유형으로서 인식할 때는 ST형과 마찬가지로 주로 감각을 사용한다. 그러나 판단할 때에는 감정을 선호한다.

셋째, NF(직관·감정)형은 열정적 통찰적 유형으로서 판단을 할 때에는 SF형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뜻한 온정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인식할 때에는 NT형과 마찬가지로 감각보다 직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대신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려질 수 있는 진리와 같은 것에 관심이 많다.

넷째, NT(직관·사고)형은 논리적 창의적 유형으로서 인식할 때는 직관의 사용을 선호한다. 그러나 판단할 때에는 사고의 객관성을 중시한다. 이들은 자신감 실현의 욕구가 강하다. 자기 비판적이며, 실용성과 합리성을 좋아한다.

(2) 네 가지 기질의 특성

기질은 서로 다른 힘들이 완화되거나 통합을 이루는 것으로 어떤 행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며, 살아있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선천적인 형태를 기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질은 기능적 유형을

포함하고 있고,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인식기능(SN), 판단기능(TF), 외부행동양식(JP)의 배합에 따라 각각 SJ(감각·판단), SP(감각·인식), NF(직관·감정), NT(직관·사고)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MBTI의 네 가지 선호경향 중 인식기능과 생활·행동양식의 배합에 따라 가시적인 행동 패턴으로 분류하면, SP(감각·인식)형, SJ(감각·판단)형, NF(직관·감정)형, NT(직관·사고)형의 네 가지 기질형으로 구분된다. NF, NT를 기질로 분류한 것은 NJ(직관·판단)형이나 NP(직관·인식)형에서는 행동에 따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김정택과 심혜숙, 1995). 네 가지 기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SJ(감각·판단)형은 현실적 의사결정자형으로서 외부행동에서는 판단기능(TF)을 사용한다. 그러나 내부세계에서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사실(S)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서 질서정연한 것을 추구하고, 조직적이고 신뢰할 만하고 보수적인 경향을 띤다.

둘째, SP(인식)형은 순응적인 현실주의자형으로서 외부행동에 있어서 직접적 경험을 얻는 사실(S)에 초점을 맞추며, 내부세계에서는 판단기능(TF)을 사용한다. 이들은 현 순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자기 주위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NT형과 NF형은 네 가지 기능의 특징에서 설명한 특징들과 같다(이순자, 1997).

이처럼 인간의 행동은 각 기능과 기질 중 선천적인 선호 유형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유형의 차이는 곧 개인의 사고·감정·행동의 차이로 나타나, 개인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는 W대학교 96학번 MBTI 성격유형검사를 한 여대생을 중심으로 가정계열, 자연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치

<표 1> 배경변인에 따른 일반적 사항

배경변인		빈도(N)	%	배경변인		빈도(N)	%
연령	19세미만	56	19.1	가구월평균	200만원이하	100	35.2
	20세	170	58.6		201-300만원	101	35.7
	21세이상	65	22.3		301만원이상	82	29.1
	계	291	100.0		계	283	100.0
소속	가정	73	25.1	혈액형	O형	79	27.2
	자연 이공	65	22.3		A형	116	39.7
	인문 사회	55	18.9		B형	64	21.9
	예체능	59	20.3		AB형	33	11.2
	의치약	39	13.4		계	291	100.0
	계	291	100.0		아버지학력	고졸이하	169
15세이전 주성장지	인구5만 이하	102	35.1	대졸이상		121	41.7
	인구6-50만	127	43.7	계		290	100.0
	인구51만 이상	62	21.2	어머니학력		고졸이하	248
	계	291	100.0		대졸이상	41	14.2
16세이후 현재까지의 주요거 주지	인구5만 이하	69	23.8		계	289	100.0
	인구6-50만	144	49.8		종교	개신교	91
	인구51만 이상	77	26.4	천주교		37	12.8
	계	290	100.0	불교		32	10.9
				원불교		11	3.7
			종교 없음	120		41.4	
			계	291	100.0		

약계열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1997년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474부 질문지를 배부하여 381부를 회수하고 그 중에 성격검사와 의복행동 질문지 2가지를 다 응한 질문지 291부 만을 택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의복행동검사

이 검사는 국내외 선행검사에서 사용된 기존문항(김광경 3문항, 최순희 4문항, 강혜원 8문항, 이금실 4문항, 이명희 9문항, 전경숙 3문항, 이명선 1문항, Creekmore 6문항)과 기존문항을 수정한 문항, 그리고 본 연구자가 새로 작성한 문항(36문

항)을 기초로 하였다. 의복행동의 5개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5단계 Likert 검사방식에 의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V하도록 했다. 본 연구자는 의복행동의 문항 74문항을 제작 및 선정하였으나 의복행동 5개 영역의 각 문항수와 Factor Loadings는 0.40+로 한정된 문항 50문항을 사용하였다.

2) MBTI 성격유형검사(Myers-Briggs Type Indicator : MBTI)

본 연구에서는 Myers와 Briggs가 제작하고 김정택, 심혜숙(1990)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MBT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9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향형-내향형을 판정하기 위한 EI지표, 감각형-직관형을 판정하기 위한 SN지표, 사고형-감정형을 판정하

(표 2) 의복행동의 Factor Loadings

의복 행동 영역									
유행성		정숙성		과시성		사치성		심미성	
질문지 번호	Factor loadings	질문지 번호	Factor loadings	질문지 번호	Factor loadings	질문지 번호	Factor loadings	질문지 번호	Factor loadings
v74	.752	v22	.667	v16	.659	v64	.673	v67	.550
v24	.697	v21	.625	v13	.593	v63	.668	v40	.529
v52	.689	v05	.588	v66	.544	w10	.657	v72	.506
v15	.685	v43	.586	v36	.467	v47	.518	v08	.490
v25	.654	v62	.531	w07	.459	v68	.428	w05	.466
v19	.646	v77	.526	v55	.459	v54	.409	v69	.441
v44	.610	v06	.474	v10	.435			v56	.413
v50	.600	v46	.464	v65	.434			v49	.413
v53	.559	v58	.451	v14	.427				
v23	.551	w09	.440						
v48	.435	v20	.434						
v26	.416	v32	.417						
v27	.411	v38	.415						
v39	.404								
계1	14	계2	13	계3	9	계4	6	계5	8

합 계 : 계1 + 계2 + 계3 + 계4 + 계5 = 50

기 위한 TF지표, 그리고 판단형-인식형을 판정하기 위한 JP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MBTI의 신뢰도는 반분 신뢰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각 지표별로 보고되어 있다. 반분 신뢰도는 EI지표는 .77, SN지표는 .81, TF지표는 .78 그리고 JP지표는 .82이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EI지표의 경우 .86, SN지표의 경우 .85, TF지표의 경우 .81, JP지표의 경우 .88로 보고되어 있다.

3. 자료처리방법

연구자료에 대한 통계적 처리는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신뢰도와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 처리를 위해 의복행동 하위 요인별점수를 구하고 상 중 하 세 집단의 빈도가 유사하도록 구분하였으며 집단간 차이검증은 5%와 1%, 0.1% 유의 수준에서 인정 여부를 검토하였다<표 3>.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의복행동과 MBTI의 선호경향과의 관계

1) 유행성과 MBTI의 선호경향과의 관계
유행성과 MBTI의 선호경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행성은 MBTI 선호경향에서 에너지 방향, 판단기능, 행동양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식기능에서는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행성과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유행성은 MBTI의 4가지의 선호경향중 정보수집의 기능인 인식기능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인식기능의 직관형(N)과 감각형(S) 중에서 직관형은 유행성이 강한 집단에서 38.6%인 반면 감각형은 28.6%로 직관형이 감각형보다 높은 유행성 정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직관형이 정보를 수집할 때 육감 내지는 영감에 의존하며 아이디어가 풍부하여 창조적인 경

〈표 3〉 의복행동 측정의 점수 분포 및 빈도

의복행동	점수	빈도(N)	%	의복행동	점수	빈도(N)	%
유행성	하(10-27)	88	30.2	사치성	하(4-9)	114	39.2
	중(28-33)	114	39.2		중(10-12)	106	36.4
	상(34-50)	89	30.6		상(13-20)	71	24.4
	계	291	100.0		계	291	100.0
정숙성	하(6-19)	95	32.6	심미성	하(6-10)	59	20.3
	중(20-22)	93	32.0		중(11-12)	127	43.6
	상(23-30)	103	35.4		상(13-15)	105	36.1
	계	291	100.0		계	291	100.0
과시성	하(3-6)	73	25.1	합계	하(3-6)	73	25.1
	중(7-9)	145	49.8		중(7-9)	145	49.8
	상(10-15)	73	25.1		상(10-15)	73	25.1
	계	291	100.0		계	291	100.0

〈표 4〉 유행성과 MBTI의 선호경향과의 관계(단위 : %)

		전체	MBTI 선호경향							
			에너지방향		인식기능		행동양식		판단기능	
			I	E	S	N	J	P	T	F
유행성	하	30.2	34.2	26.1	33.3	17.5	30.9	29.3	29.8	30.7
	중	39.2	38.3	40.1	38.0	43.9	42.9	33.6	42.4	35.7
	상	30.6	27.5	33.8	28.6	38.6	26.3	37.1	27.8	33.6
합계 (사례)		100.0 (291)	100.0 (149)	100.0 (142)	100.0 (234)	100.0 (57)	100.0 (175)	100.0 (116)	100.0 (151)	100.0 (140)
통계치			$\chi^2=2.61$ df=2 N.S		$\chi^2=5.66$ df=2 P < 0.05		$\chi^2=4.23$ df=2 N.S		$\chi^2=1.63$ df=2 N.S	

향이 강하기 때문에 유행성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행을 따르는 성향은 정보수집 기능이 강한 사람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인 Ditty의 의복스타일 선호와 내향성-외향성과의 연구에서 내향적인 사람은 의복의 선호의 폭이 넓었으며, 외향적인 사람은 의복선호의 경향이 한정되었다(임숙자, 1992)와, Kahng의 연

구인 내향적인 사람이 개성적인 옷을 입었다(이현미, 1987)는 연구는 유행성과 에너지방향에서 내향성, 외향성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과 다소 차이가 있다.

2) 정숙성과 MBTI 선호경향과의 관계
정숙성과 MBTI 선호경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표 5〉 정숙성과 MBTI 선호경향과의 관계 (단위 : %)

		전체	MBTI 선호경향							
			에너지방향		인식기능		행동양식		판단기능	
			I	E	S	N	J	P	T	F
정 숙 성	하	32.6	25.5	40.1	30.8	40.4	29.1	37.9	34.4	30.7
	중	32.0	34.2	29.6	31.2	35.1	35.4	26.7	31.8	32.1
	상	35.4	40.3	30.3	38.0	24.6	35.4	35.3	33.8	37.1
합계 (사례)		100.0 (291)	100.0 (149)	100.0 (175)	100.0 (234)	100.0 (57)	100.0 (175)	100.0 (116)	100.0 (151)	100.0 (140)
통계치			$\chi^2=7.31$ df=2 p<0.05		$\chi^2=3.86$ df=2 N.S		$\chi^2=3.30$ df=2 N.S		$\chi^2=0.54$ df=2 N.S	

결과 <표 5>와 같다. 정숙성은 MBTI선호경향에서 인식기능, 판단기능, 행동양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에너지방향은 유의수준 ($P < 0.05$)에서 정숙성과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방향의 내향성(I)이 외향성(E) 보다 높은 정숙성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내향성은 정숙성이 강한 집단이 40.3%인 반면 외향성은 30.3%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 초점을 자기의 내부에 두고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는 내향성이 높은 자와 정숙성이 유의미한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숙성은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 외향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3) 과시성과 MBTI 선호경향과의 관계

의복행동 요인에서 과시성은 <표 6>과 같이 MBTI의 선호경향 중 에너지방향, 인식과정, 판단과정, 행동양식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4) 사치성과 MBTI선호경향과의 관계

사치성과 MBTI 선호경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사치성은 MBTI 선호경향에서 인식기능, 판단기능, 행동양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에너지방향은 유의수준 $P < 0.01$ 에서 사치성과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사치성은 4가지 선호경향 중에서 주의집중 기능인 에너지방향과 관련이 있었는데, 특히 에너지 방향의 외향형(E)과 내향형(I)중에서 외향형이 높은 사치성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외향형은 사치성이 강한 집단이 32.4% 인 반면 내향형은 16.8%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형이 주의집중을 자기의 외부에 집중하며 폭넓은 대인관계와 사교적이고 정열적인 활동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MBTI 선호경향에서 에너지방향은 정숙성 ($P < 0.05$)과, 사치성($P < 0.01$)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데, 에너지 방향 중에서도 정숙성은 내향형과 유의미한 정도가 높고 사치성은 외향형과 유의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김광경, 1974)에서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으로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려 하므로 사치스러운 의복에 관심이 많은 반면, 정숙성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사치성과 정숙성이 부적의 관계를 보이는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심미성과 MBTI의 선호경향과의 관계

의복행동 요인에서 심미성은 <표 8>과 같이 MBTI의 선호경향중 에너지방향, 인식과정, 판단과정, 행동양식과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표 6〉 과시성과 MBTI의 선호경향과의 관계(단위 : %)

		전체	MBTI 선호경향							
			에너지방향		인식과정		행동양식		판단기능	
			I	E	S	N	J	P	T	F
과 시 성	하	25.1	22.1	28.2	24.8	26.3	23.4	27.6	22.5	27.9
	중	49.8	53.7	45.8	49.1	52.6	53.7	44.0	52.3	47.1
	상	25.1	24.2	26.1	26.1	21.1	22.9	28.4	25.2	25.0
합계 (사례)		100.0 (291)	100.0 (149)	100.0 (142)	100.0 (234)	100.0 (57)	100.0 (175)	100.0 (116)	100.0 (151)	100.0 (140)
통계치			$\chi^2=2.07$ df=2 N.S		$\chi^2=0.61$ df=2 N.S		$\chi^2=2.68$ df=2 N.S		$\chi^2=1.22$ df=2 N.S	

〈표 7〉 사치성과 MBTI 선호경향과의 관계 (단위 : %)

		전체	MBTI 선호경향							
			에너지방향		인식기능		행동양식		판단기능	
			I	E	S	N	J	P	T	F
사 치 성	하	39.2	43.0	35.2	40.2	35.1	40.6	37.1	37.7	40.7
	중	36.4	40.3	32.4	36.3	36.8	36.6	36.2	34.4	38.6
	상	24.4	16.8	32.4	23.5	28.1	22.9	26.7	27.8	20.7
합계 (사례)		100.0 (291)	100.0 (149)	100.0 (142)	100.0 (234)	100.0 (57)	100.0 (175)	100.0 (116)	100.0 (151)	100.0 (140)
통계치			$\chi^2=9.62$ df=2 P<0.01		$\chi^2=0.7$ df=2 N.S		$\chi^2=0.65$ df=2 N.S		$\chi^2=2.0$ df=2 N.S	

〈표 8〉 심미성과 MBTI의 선호경향과의 관계 (단위 : %)

		전체	MBTI 선호경향							
			에너지방향		인식기능		행동양식		판단기능	
			I	E	S	N	J	P	T	F
심 미 성	하	20.3	20.8	19.7	19.2	24.6	21.1	19.0	19.9	20.7
	중	43.6	45.0	42.3	44.4	40.4	45.7	40.5	44.4	42.9
	상	36.1	34.2	38.0	36.3	35.1	33.1	40.5	35.8	36.4
합계 (사례)		100.0 (291)	100.0 (149)	100.0 (142)	100.0 (234)	100.0 (57)	100.0 (175)	100.0 (116)	100.0 (151)	100.0 (140)
통계치			$\chi^2=0.46$ df=2 N.S		$\chi^2=0.84$ df=2 N.S		$\chi^2=1.65$ df=2 NS		$\chi^2=0.07$ df=2 N.S	

〈표 9〉 의복행동과 MBTI의 기능·기질과의 관계

구분 요인	분류	전체	MBTI의 기질, 기능별							
			기질별				기능별			
			SJ	SP	NF	NT	ST	SF	NF	NT
유행성	하	30.2	32.2	35.2	17.1	18.2	31.8	35.2	17.1	18.2
	중	39.2	42.0	31.9	42.9	45.5	41.9	33.3	42.9	45.5
	상	30.6	25.9	33.0	40.0	36.4	26.4	31.4	40.0	36.4
	합계 (사례)	100.0 (291)	100.0 (143)	100.0 (91)	100.0 (35)	100.0 (22)	100.0 (129)	100.0 (105)	100.0 (35)	100.0 (22)
	통계치		$\chi^2=8.28$ N.S df=6				$\chi^2=7.54$ N.S df=6			
정숙성	하	32.6	28.7	34.1	34.3	50.0	31.8	29.5	34.3	50.0
	중	32.0	33.6	27.5	37.1	31.8	31.8	30.5	37.1	31.8
	상	35.4	37.8	38.5	28.6	18.2	36.4	40.0	28.6	18.2
	합계 (사례)	100.0 (291)	100.0 (143)	100.0 (91)	100.0 (35)	100.0 (22)	100.0 (129)	100.0 (105)	100.0 (35)	100.0 (22)
	통계치		$\chi^2=6.56$ N.S df=6				$\chi^2=5.74$ N.S df=6			
과시성	하	25.1	23.8	26.4	28.6	22.7	22.5	27.6	28.6	22.7
	중	49.8	53.1	42.9	48.6	59.1	51.2	46.7	48.6	59.1
	상	25.1	23.1	30.8	22.9	18.2	26.4	25.7	22.9	18.2
	합계 (사례)	100.0 (291)	100.0 (143)	100.0 (91)	100.0 (35)	100.0 (22)	100.0 (129)	100.0 (105)	100.0 (35)	100.0 (22)
	통계치		$\chi^2=3.86$ N.S df=6				$\chi^2=2.07$ N.S df=6			
사치성	하	39.2	40.6	39.6	40.0	27.3	39.5	41.0	40.0	27.3
	중	36.4	37.8	34.1	42.9	27.3	35.7	37.1	42.9	27.3
	상	24.4	21.7	26.4	17.1	45.5	24.8	21.9	17.1	45.5
	합계 (사례)	100.0 (291)	100.0 (143)	100.0 (91)	100.0 (35)	100.0 (22)	100.0 (129)	100.0 (105)	100.0 (35)	100.0 (22)
	통계치		$\chi^2=7.32$ N.S df=6				$\chi^2=6.86$ N.S df=6			
심미성	하	20.3	19.6	18.7	31.4	13.6	20.9	17.1	31.4	13.6
	중	43.6	46.2	41.8	31.4	54.5	42.6	46.7	31.4	54.5
	상	36.1	34.3	39.6	37.1	31.8	36.4	36.2	37.1	31.8
	합계 (사례)	100.0 (291)	100.0 (143)	100.0 (91)	100.0 (35)	100.0 (22)	100.0 (129)	100.0 (105)	100.0 (35)	100.0 (22)
	통계치		$\chi^2=5.41$ N.S df=6				$\chi^2=5.33$ N.S df=6			

2. 의복행동과 MBTI의 기능·기질과의 관계

의복행동요인인 유행성, 정숙성, 과시성, 사치성, 심미성은 선천적인 성격유형인 MBTI의 기능·기질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행동은 선천적인 성격에 좌우된다고 하기보다는 후천적인 영향과 행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나, 소속해있는 사회문화적인 여건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MBTI 성격유형은 여대생의 의복행동과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행성은 성격유형의 MBTI 선호경향중 인식기능과 집단간 유의수준 ($P <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식기능의 직관형(N)은 감각형(S)보다 높은 유행성 정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정보를 수집 할 때 육감 내지는 영감에 의존하며 또한 미래를 향해 살고 있고 무엇인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아이디어가 풍부하여 창조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행성이 높은 사람은 선천적으로 감각과 직관의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숙성은 성격유형의 MBTI 선호경향중 에너지방향이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방향의 내향성(I)은 외향성(E) 보다 높은 정숙성 정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외적경험을 필요로 하고 행동으로 체험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내향성(I)은 주의 초점을 자기의 내부에 두고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의복행동중 과시성은 성격유형의 MBTI 선호경향에서 에너지 방향, 인식기능, 판단 기능, 행동양식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격 유형의 MBTI 선호경향중 에너지방

향은 사치성과 유의수준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에너지방향의 외향성은 주의집중을 자기의 외부에 집중하며, 활동적인 성향이 강하고 경험한 다음에 이해를 하고 자기의 생각을 글보다 말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치성은 에너지방향에서 외향성(E)과 유의미한 차이가 크고 정숙성은 에너지 방향 중에서 내향성(I)이 유의미한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인 김광경의 경제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으로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려 하므로 정숙한 의복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보아 성격유형의 MBTI 선호 경향에서도 정숙성과 사치성은 서로 부적 성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의복행동중 심미성은 성격특성인 에너지 방향, 인식기능, 행동양식, 판단기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의복행동인 유행성, 정숙성, 과시성, 사치성, 심미성은 성격유형의 기질, 기능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특성인 기질, 기능성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선천적인 성격의 성향이기에 때문에 의복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행동과 MBTI 성격유형은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복행동은 선천적인 선호경향에 좌우되기보다는 후천적인 영향, 즉 행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나, 소속해있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천적인 태도와 기능들이 각각 어느 정도 의식적 발달 상태에 있거나 무의식적 상태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발달 수준에 차이가 생기고, 결국 개인간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의복행동의 측정을 위한 이론적 모델의 체계화 및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 성격의 내·외향성과 인식과정을 결합한 성격유형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 의복행동과 성격의 기질과 기능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 의복행동과 MBTI에서 측정하는 16가지 성격유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주제어 : MBTI선호경향, 에너지방향, 인식기능, 선천적, 기질.

참 고 문 헌

- 1) 강선자(1975). 복식디자인. 서울: 형설출판사, p.50.
- 2) 강혜원(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개성 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논문집, 제7집, pp. 349-376.
- 3) 김광경(1974). "1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관심에 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김정택·심혜숙(1990). 심리유형 검사의 한국 표준화에 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심리 치료, 3(1), p.44-47.
- 5) 김정택·심혜숙(1995). MBTI 안내서. 서울: 한국심리검사 연구소, p. 7.
- 6) 박찬부(1978). 여대생의 의복행태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논문집, 제4집, pp. 175-194.
- 7) 박광희·강혜원(1984).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관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1), pp. 13-19.
- 8) 설영환(1989). Jung의 심리학 해설. 서울: 선영사.
- 9) 심혜숙·임승환 역(1997).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서울: 한국심리검사 연구소, p. 5.
- 10) 양은옥(1997). MBTI의 심리유형 지표와 사회적 문제해결양식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1) 이금실(1978) 외 1인.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 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권 2호, pp. 287-294.
- 12) 이명선(1984). 자유- 보수주의적 태도와 의복에 관한 태도와의 관계 연구 - 유행과 동조성, 개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 18, No1.
- 13) 이명희(1982). "예의·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미적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이순자(1997). 초등학생의 성격유형과 창의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5) 이은실(1979).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이은주(1982).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개인의 의복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이인자(1988).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p. 10.
- 18) 이현미(1987). 어머니와 딸의 성 역할 정체감과 음양 의복행동간의 관계 - 이대생을 중심으로 -.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 임숙자(1992).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임춘봉(1974).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장경남(1980). 저임금 근로 여성의 의복행태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2) 전경숙(1980). 여대생 의상행태에 대한 남자대학생의 관심에 관한 연구 -정숙성, 심미성, 유행성, 사치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조규화(1982).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 361.
- 24) 최순희(1981). 여성 의복행태에 대한 남녀별 반응과 가족가치관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홍금희(1982). 수용성, 경직성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간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Asahashi C. L. T & A. Newton(1967). Perception of clothing conform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9, no. 9.
- 27) Benson C. A(1971). "Clothing Conformity Attitudes as They Related to Level of Self Esteem Among Adolescent Girl" (Unpublished

-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pp. 21-22.
- 28) Creermore A. M.(1966).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No. 783, Michigan State University.
- 29) Kahng,H.(1971). "Clothing Interests and Clothing Aspirations Associated with Selected Social-Psychological Factors for a Group of Collage Women in Korea," 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University.
- 30) Kefgen M. & P. Touchie(1969). op, cit., p. 66, quoted in J. Laver, Modesty in Dress(Boston : Houghton Mifflin Co., p. 13.11) Kefgen M. & P. Touchie-spocht. *Op. cit.* p. 36.
- 31) Kefgen M. & P. Touchic(1974). spicht, *op. cit.*, p. 33, quoted in Reed, "By Their Clothes shall we know Them", Behavior Today (February 18), p. 49.
- 32) K. M. Lester & R. N. Kerr(1959). *Historic Costume*, (6th, : Peoria, Ill : chas, A. Benneff Co., Inc.), p. 10.
- 33) Him Y. Der Urs Prung der Kunst(1904), quoted in Sanborn, p. 205.
- 34) Horn, M. J(1939). *Op. cit.*, p. 203, quoted in H. Ellis,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 Vol, 4.(Random House, New York), p. 209.
- 35) Horn, M. J(1970). *Op. cit.* p. 167, quoted M. Schrank, "Fashion Innovativeness and Fashion Opinion Leadership as Related to Social Nesecurity Attitudes Toward Conformity, Clothing Interestand Socioeconomic Level," (Unpublis dissa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36) Horn M. J, *Op. cit.*, p. 147.
- 37) Pasnak M.D. & R. W. Ayres(1969). "Fashion Innovator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1. No. 9, pp. 698-701.
- 38) Rosencranz M. L(1928). *Op. cit.*, p. 118, quoted in p. Nystrom, Economies of fashion, (New York : The Ronald Press Co.), p. 19.
- 39) Rosencranz M.L(1972). *Clothing Concepts* (New York. : The Macmillan), p. 185
- 40) Thomas Carlyle, Sartor Resartus, Frederick William Roe(1927), ed. (N. Y. : The Macmillan Co), p. 40.
- 41) Ryan, Mary Shaw(1966). *Clothing :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Inc.) p. 103.